

별을 아는 강아지

프롤로그: 현실에서의 탈출

"이번 프로젝트 총책임자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에 AJ(앨리스 정)의 6개월이 무너져내렸다. 밤낮없이 매달렸던 프로젝트였다.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책임자로서 모든 결과를 떠안아야 했다.

"정 팀장님, 잠시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하는 건 어떨까요?"

인사팀장의 말은 정중했지만, 결국 '잠시 자리를 비우라'는 뜻이었다. AJ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13년차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최악의 순간이었다.

퇴근길, 차 안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다. 조수석에 앉은 반려견 밤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3년 전 우연히 입양한 밤이는 이제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집에 도착해 자동으로 메일을 확인하려던 손가락이 멈췄다. 문득 서랍 속 오래된 캠핑카 열쇠가 떠올랐다. 2년 전 충동적으로 산 85년식 폭스바겐 베스트팔리아. 주말마다 떠나겠다면 다짐은 매번 업무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다 영영 못 떠나게 되는 거 아닐까..."

할머니의 유품 정리를 하다 발견한 오래된 다이어리도 집어 들었다. 젊은 시절 할머니가 뉴욕에서 보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표지 안쪽에는 캠핑카 앞에서 찍은 흑백사진 한 장이 붙어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사진 속 강아지는 밤이와 똑같이 생겼다.

"밤이야, 우리 잠시 어디라도 다녀올까?"

계획성 있게 살아온 그녀답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도망치고 싶었다. 회사에서, 실패에서, 모든 현실에서.

간단히 짐을 챙기는데 밤이가 할머니의 다이어리를 물고 왔다.

"그래, 이것도 가져가자."

오래된 캠핑카의 시동이 걸렸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저 달렸다.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있었다.

"이제 어찌지..."

불안한 미래가 머릿속을 채웠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AJ는 할머니의 다이어리를 펼쳤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들은 계획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

졸음이 밀려왔다. 캠핑카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밤이가 편안하게 숨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 AJ는 밤이의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리고...

2장: 리틀 스팅스의 밤

캠핑카의 문을 열자 1920년대 뉴욕의 밤거리가 눈앞에 펼쳐졌다. AJ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네온사인인 반짝이는 거리, 사람들의 옛스러운 차림새,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까지. 모든 것이 마치 살아있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 밤이야. 우리가 정말 이곳에 온 거 맞지?"

밤이는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먼저 앞장섰다. 좁은 골목을 지나자 조용한 길가의 작고 허름한 건물이 나타났다. 입구에는 "리틀 스팅스 - 비밀스러운 스피크이지"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문은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살며시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 연기와 위스키 향이 뒤섞인 공기가 훅 끼쳤다. 무대 위에서는 재즈 밴드가 열정적인 연주를 펼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리듬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어머, 스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진주빛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다가왔다. 그녀의 가슴팍에는 반짝이는 별 모양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브로치는 마치 진짜 별처럼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스타라뇨?"

"아, 미안해요. 저기 위층에 있는 마담의 강아지가 있는데, 정말 이 아이와 똑같거든요. 제 이름은 루이즈예요. 이곳의 가수죠."

루이즈는 말하면서 자신의 브로치를 무심코 만졌다. 그 순간, 밤이의 목걸이 펜던트가 브로치와 같은 빛깔로 반짝였다.

"전 AJ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밤이라고 해요."

"밤이...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마치 별이 가득한 밤하늘 같아요."

루이즈가 테이블로 안내하는 동안, 그녀의 발치에는 까만 강아지가 조용히 따라왔다. 밤이는 그 강아지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했고, 두 강아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반겼다.

"이상하네요. 스타는 보통 낯선 강아지들과 어울리지 않는데... 마치 서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루이즈는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곳은 꿈꾸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매일 밤, 현실에서는 금지된 자유를 만끽하러 오는 사람들이죠."

그녀가 말하는 동안 무대에서는 트럼펫 소리가 더욱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AJ는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장소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당신도 꿈을 찾아 이곳에 오신 건가요?" 루이즈가 물었다.

"아뇨, 저는... 사실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렇게 우연히 찾아온 곳이 진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일 때가 있죠."

루이즈는 말을 마치고 브로치를 다시 한번 만졌다. "이 브로치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에요. 언젠가 특별한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 이야기가 담긴 별이니깐요."

그때 무대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노래할 시간이네요.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꼭 다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당신에게서 왠지 친근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루이즈가 무대에 오르자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 그녀는 습관처럼 브로치를 한번 더 만졌다. 첫 음이 흘러나왔다. 루이즈의 목소리는 재즈 선율과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이상하게도 AJ에게 친숙했다.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가 자주 들려주던 자장가 같았다. 무대 위의 루이즈는 완벽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자유롭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시간이 흐르고 클럽의 열기는 점점 고조되었다. 루이즈는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 AJ의 테이블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우리 함께 춤추지 않으실래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AJ는 잠시 망설였지만, 루이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무대 앞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밤이와 스타도 그들 주위를 뛰어다니며 함께 어울렸다.

춤이 끝나고, 루이즈는 AJ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 순간을 사랑해요, AJ.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곳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그 말은 마치 AJ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다. 현실에서 지친 나날을 보내며 잊고 있었던 자유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이 순간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클럽을 나서며 AJ는 루이즈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브로치의 별빛처럼 반짝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밤이와 스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AJ의 곁으로 돌아왔다.

밤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멀리서 또 다른 재즈 선율이 들려왔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3장: 시간이 멈춘 서점

리틀 스펡스를 나서자 차가운 밤공기가 AJ의 뺨을 스쳤다. 아직도 귓가에는 재즈 선율이 맴돌고 있었다. 밤이가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골목 한켠을 주시했다. 낡은 벽돌 건물 사이로 따스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골목 끝에서 '레오의 책방'이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밤이는 마치 무언가를 찾은 듯 서점 앞을 서성였다.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를 맡더니 낮게 울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달콤한 책 냄새가 스며나왔다. 오래된 가죽 장정과 바스라지는 종이 냄새, 그리고 시간의 흔적이 묻어있는 듯한 특유의 향기였다. AJ가 망설이는 사이 밤이가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들이 미로처럼 늘어서 있었다.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있는 서가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었다.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공간을 감쌌다. 책장 위로는 세피아 빛 사진들이 걸려있었다. 전쟁터의 풍경들,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 곁에서 함께하는 군용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밤이는 책장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특히 오래된 가죽 장정의 책들이 있는 구석에서 유난히 관심을 보였다. 코를 벌름거리며 책 한 권 한 권의 냄새를 맡았다.

"어서 오세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책장 사이에서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반짝였다. 그는 밤이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마치 세도우를 보는 것 같네요."

남자는 자신을 레오라고 소개했다. 전쟁 중에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그는 지금은 이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있었다.

"세도우라면...?" AJ가 조심스레 물었다.

"제 반려견이었죠. 전쟁 때 함께했던...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료였어요." 레오의 목소리가 떨렸다. "1917년, 프랑스 전선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엔 서로를 경계했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죠."

레오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그와 검은 군용견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개는 밤이와 놀랍도록 닮아있었다.

"세도우는 수많은 부상병을 구했어요. 포화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생명을 구했죠. 때로는 전선의 병사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레오는 다른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다.

"이건 세도우 덕분에 살아남은 병사들이 보낸 편지예요."

사랑하는 엘리자에게,

오늘 나는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소. 포화 속에서 의식을 잃은 나를 의무대의 검은 개가 발견했어요. 그 아이의 덕분에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소.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그 용감한 친구가 내 곁에서 잠들어 있네요...

밤이가 다른 편지를 가리켰다.

아들아,

이 편지가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검은 군용견이 우리 부대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편지를 써본다. 네가 보낸 사진을 매일 보며 기도한다. 어서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내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가 떠나온 시칠리아의 하늘은 언제나 파랗단다. 네가 태어난 마을의 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전쟁을 피해 이곳 뉴욕에 왔지만, 우리의 작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이 그리구나.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 너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밤이가 이번에는 책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무언가를 물고 나왔다. 낡은 가죽 목줄이었다.

"세도우의..." 레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지막 임무에서 그 아이는 다섯 명의 병사를 구하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 목줄만이 유일한 흔적이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밤이가 조용히 레오의 발치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이 마치 세도우와 똑같았다. 레오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전쟁이 끝난 후, 저는 이 서점을 열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기억을 지키는 일... 그게 세도우가 원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잊혀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으니까요."

AJ는 자신의 실패가 떠올랐다. 프로젝트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순간들, 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패나 상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레오가 말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죠.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밤이가 AJ의 손을 핏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서점을 나서는 순간, 밤이가 다시 한번 레오를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대신 따뜻한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다.

밤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멀리서 또 다른 이야기가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AJ는 문득, 자신의 이야기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4장: 요리사의 꿈

서점을 나와 얼마 걷지 않았을 때였다. 바람결을 타고 향긋한 토마토 소스 냄새가 퍼져왔다. 밤이가 코를 별름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골목길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허름한 건물 지하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Antonio's Kitchen'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걸려있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음식 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문을 열자 따스한 공기가 AJ를 반겼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담소 소리와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요?"

앞치마를 두른 젊은 남자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다. 까만 곱슬머리는 주방의 열기로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요리하느라 상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생기가 넘쳤다.

"저는 안토니오입니다. 이 작은 레스토랑의 주인이자 요리사죠." 그가 AJ를 창가 자리로 안내하며 말했다. 밤이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신기하게도 이곳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듯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파스타를 준비했거든요." 안토니오가 덧붙였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AJ가 고개를 끄덕이자 안토니오는 재빨리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요리하는 모습은 마치 무용수의 춤처럼 자연스러웠다. 모든 동작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 가족은 시칠리아에서 왔어요." 안토니오가 파스타를 준비하며 말했다. "할머니는 단 하나의 레시피만을 들고 이곳으로 오셨죠. 전쟁을 피해 도망치다시피 왔지만, 그 레시피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리셨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존경이 묻어났다.

"지금 이 가게는... 쉽지 않아요. 금주법 때문에 많은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곳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니까요."

안토니오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테이블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힘든 하루를 위로받는 사람들,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이들, 그리고 그저 따뜻한 한 끼로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보세요, 음식은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거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함께 나눌 테이블을, 지친 사람에게는 따뜻한 수프를 주어라'라고."

그가 준비한 파스타가 테이블에 놓였다. 신선한 재료의 향과 소스의 깊은 맛이 어우러졌다. AJ는 첫 입을 먹는 순간 어린 시절 할머니의 부엌이 떠올랐다.

"맛있네요... 정말 특별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안토니오가 씩씩하게 웃었다. "요즘같은 불황에 이런 작은 레스토랑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 꿈은 단순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요. 음식으로 위로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밤이가 안토니오의 발치에 다가가 앉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상하네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져요. 우리 할머니도 검은 개 한 마리를 키우셨거든요. 매일 주방에서 함께했죠."

주방에서 타이머 소리가 울렸다. 안토니오는 서둘러 일어났다. "잠시 실례할게요. 오늘의 특별 요리가 있거든요."

그가 주방으로 돌아간 후, AJ는 레스토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시칠리아의 풍경, 젊은 시절의 할머니, 그리고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의 모습들.

"우리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안토니오가 새로운 요리를 들고 돌아오며 말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로 인해 누군가의 하루가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요."

AJ는 문득 자신의 프로젝트 실패를 떠올렸다. 성공만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실패가 두려워요?" 안토니오가 물었다. "저도 그래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내일은 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불을 켜고 요리를 시작하죠. 누군가는 오늘도 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밤이가 AJ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깊은 밤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레스토랑은 마치 작은 태양처럼 따뜻했다.

"언젠가는..." 안토니오가 마지막 테이블의 손님을 배웅하며 말했다. "더 큰 레스토랑을 열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레시피를 전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요. 그때까지 이 작은 꿈을 지켜나갈 거예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AJ는 뒤돌아보았다. 안토니오는 여전히 주방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작지만 확실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의 모습에서, AJ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멀리서 또 다른 이야기가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실패가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았다. 때론 작은 꿈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밤 안토니오가 가르쳐주었으니까.

5장: 꿈꾸는 소녀

레스토랑의 따뜻함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을 때였다. AJ와 밤이는 한적한 공원에 들어섰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깊어가는 밤이었지만,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소녀가 보였다.

밤이가 먼저 소녀에게 다가갔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밤이를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녀의 말에 AJ는 놀라 걸음을 멈췄다. 소녀의 무릎 위에는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수많은 별들이 그려져 있었다. 달빛에 비친 소녀의 얼굴은 마치 투명한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제 이름은 스텔라예요." 소녀가 말했다. "별이란 뜻이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지어주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창문으로 별빛이 쏟아져 들어왔대요. 마치 하늘이 저를 축복해준 것 같다고..."

밤이는 자연스럽게 스텔라의 발치에 앉았다. 그러곤 소녀의 스케치북을 관심 있게 바라보았다. 스텔라는 밤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가 기억나요." 스텔라가 말을 이었다. "모든 게 무서웠죠. 다른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다고 했어요. 밤마다 창문가에 앉아 별을 보는 제가 이해되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별들은 달랐어요. 별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AJ는 소녀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혼자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도 괜찮아?"

스텔라는 빙그레 웃었다. "괜찮아요. 별들이 저를 지켜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밤이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올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스텔라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색연필을 골랐다. "제가 처음 별을 그리기 시작한 건 제 여덟 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날도 혼자였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입양되어 가족을 만났는데, 전 여전히 고아원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날 밤, 창밖의 별들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모든 사람에겐 각자의 별이 있다고..."

그녀의 손끝에서 별들이 태어났다. "사람들에겐 각자의 별이 있어요. 방금 만난 요리사 아저씨는 따뜻한 주황빛 별이에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잖아요. 서점의 레오 할아버지는 차분한 푸른 별처럼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요."

AJ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알았어?"

스텔라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별들이 알려줬어요. 당신의 별도 보여요."

"내 별은 어떤 모습이니?"

"지금은 조금 흐릿해요. 마치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하지만 곧 밝아질 거예요. 모든 별들이 그러하듯이,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밝게 빛나기 직전이니깐요."

AJ는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나도 어렸을 때 별을 좋아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학교 옥상에서 혼자 별을 보며 꿈을 꾸곤 했지... 언젠가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믿었던 것 같아."

스텔라가 AJ를 바라보았다. "그 꿈은 이제 어디에 있나요?"

"잃어버렸어. 아니, 어쩌면 내가 버린 걸지도 몰라. 현실이 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밤이가 AJ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스텔라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저는 매일 밤 여기 나와요. 다른 아이들이 잠들고, 고아원이 조용해질 때... 그때 별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요. 때로는 슬픈 이야기, 때로는 기쁜 이야기... 마치 사람들처럼요."

그녀의 손끝에서 별자리가 완성되어 갔다. "보세요, 모든 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 빛나는 별은 없습니다. 당신의 별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꿈도, 포기했다고 생각

한 희망도, 모두 여기 있어요."

밤이가 스텔라의 그림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그러더니 부드럽게 스케치북 한 귀통이를 핥았다.

"밤이도 알고 있나 봐요." 스텔라가 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걸요. 고아원에서 저는 늘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별들이 가르쳐줬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스텔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다른 아이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해요. 혼자 별을 보고, 혼자 그림을 그리고... 하지만 전 괜찮아요. 밤하늘의 별들은 제 가장 친한 친구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밤이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특별한 친구도 생겼고요."

AJ는 스텔라의 말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늘 혼자였던 시간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으려 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스텔라가 말을 이었다. "매일 밤 이렇게 혼자 나오는 게요. 하지만 별들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두려움도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그때 별뿔별 하나가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스텔라는 재빨리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었니?"

"네. 하지만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대요." 스텔라가 장난스럽게 윈크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별들이 그렇듯이, 우리의 소원도 때가 되면 빛나게 될 테니까요."

멀리서 고아원의 종소리가 들렸다. 스텔라는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을 AJ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힘들 때마다 보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꿈도, 언젠가는 다시 찾게 될 거예요."

스텔라가 떠난 후에도, 그녀가 남긴 말들이 AJ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AJ는 스텔라의 그림을 가슴에 안은 채, 밤이와 함께 다음 여정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제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 모든 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녀도 누군가의 별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멀리서 재즈 선율이 들려왔다. 마치 별들이 춤추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들을 새로운 이야기로 이끌고 있었다.

스텔라의 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AJ는 별자리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밤이가 그녀의 발치에서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재즈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상하지 않니, 밤이야? 이 도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져."

밤이는 마치 대답하듯 앞장서서 걸었다. 음악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골목 하나가 갑자기 넓어지며 작은 광장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밤이 아니니?"

밝은 목소리와 함께 트럼펫을 든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네? 밤이를 아시나요?"

"당연하죠! 이 녀석, 매일 밤 우리 공연할 때마다 와서 첫 열에 앉아있곤 했거든요. 음악의 진정한 애호가라니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샘이에요. 이 '달빛 재즈 밴드'의 리더죠."

그제야 AJ는 밤이가 혼자만의 비밀 여행을 다녀왔던 것임을 깨달았다. 동시에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봐요, 여러분! 오늘 밤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샘이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다. "밤이의 주인님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다. 그중에는 놀랍게도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다. 루이즈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고, 안토니오는 앞치마를 두른 채 허둥지둥 달려왔다. 레오도 책 한 권을 들고 조용히 나타났다.

"아니, 이렇게 다 모이다니..." AJ가 놀라서 말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죠?" 루이즈가 wink했다.

샘이 트럼펫을 들어올렸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특별한 밤이니, 특별한 음악으로 시작하죠!"

트럼펫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피아노와 베이스, 드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재즈가 아닌, 마치 도시의 숨결 같았다. 루이즈는 자연스럽게 노래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희와 함께 하시겠어요?" 샘이 AJ에게 손을 내밀었다.

"전... 음악은 잘 모르는데..."

"음악을 모른다고요? 심장이 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음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저 느끼기만 하면 돼요."

샘의 말에 용기를 얻어 AJ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밴드가 새로운 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음악이 그녀의 몸을 이끌기 시작했다. 루이즈가 옆에서 화음을 넣어주었고, 안토니오는 즉석에서 냄비로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때였다. 별을 그리던 스텔라의 말이 떠올랐다.

"모든 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 빛나는 별은 없습니다."

마치 그 말에 화답하듯, 음악은 모든 이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다.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순간만큼은 같은 리듬으로 숨쉬고 있었다.

"보세요," 레오가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큰 이야기의 일부인 거죠."

밤이는 무대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즐거워했다. 달빛이 무대를 비추자 악기들이 은은하게 빛났다. 마치 스텔라가 그린 별자리처럼,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다.

"자, 이제 특별한 순간입니다!" 샘이 연주를 잠시 멈추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준비되셨나요?"

사람들이 하나둘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루이즈는 허밍으로, 안토니오는 냄비로, 레오는 책으로 리듬을 만들어냈다. 거리의 모든 것이 악기가 되었다.

그 순간 AJ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완벽한 성공도, 거창한 목표도 아닌... 그저 이렇게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각자의 방식으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음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별뿔별 하나가 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잠시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소원을 빌어요, 모두!" 루이즈가 외쳤다.

AJ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으니까. 이 순간,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다.

"고마워, 밤이야." AJ가 속삭였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밤이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는 듯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아직 밤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었으니까.

6장: 떠나는 자와 머무는 자의 이야기

재즈 공연이 끝나갈 무렵, 거리는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멀리서 들려오던 종소리도 잦아들었고, 달빛만이 거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AJ는 밤이와 함께 광장을 벗어나 조용히 걸었다. 방금 전 그녀가 경험했던 자유와 해방감이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들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볼까, 밤이야?" AJ가 중얼거리며 스텔라가 그려준 별자리 그림을 꺼내들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 그림을 살짝 흔들었다. AJ는 다시 한번 그 아름답고 섬세한 별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다. 각기 다른 색으로 빛나는 별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오늘 밤 만난 사람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문득 낮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바다 내음이었다. 뉴욕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진한 바다 향기를 맡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밤이가 먼저 그 향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돌아 나온 곳에는 작은 상점이 있었다. '항해자의 안식처'라는 오래된 간판이 달려 있었고, 창문으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와 함께 바다 향이 더욱 진하게 퍼져왔다.

가게 안은 마치 오래된 범선의 선실을 연상케 했다. 벽면에는 다양한 지도들이 걸려있었고, 선반에는 나침반과 망원경 같은 항해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차분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다. 깊은 주름이 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맑고 깊었다.

"전 마티유라고 합니다. 이 작은 가게의 주인이죠."

AJ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밤이의 행동과 마티유의 따뜻한 인사를 보며, 이곳이 진실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건넸다.

"이런 늦은 시간에도 문을 여시나요?"

마티유는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손님이 가장 늦은 시간에 오시곤 합니다."

그는 AJ를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항해 일지처럼 보이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

"혹시... 선장이셨나요?" AJ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랬었죠." 마티유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수십 년간 바다를 항해했어요. 새로운 항구를 발견하는 것,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 전부였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벽에 걸린 낡은 지도를 쓰다듬었다. AJ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애뜻함과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 머물러요. 대신 다른 이들의 항해를 돕고 있죠. 때로는 머무는 것도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티유의 말에 AJ의 마음이 울렸다. 그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여행은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세요." 마티유가 항해 일지를 펼쳤다. "이건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 그들의 꿈과 두려움, 희망과 좌절...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있죠."

페이지를 넘기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AJ의 눈앞에 펼쳐졌다. 새로운 시작을 찾아 떠나는 젊은 이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인들, 사랑을 찾아 항해하는 연인들...

"아름답네요." AJ가 감탄했다. 그녀의 음성에는 깊은 울림이 감돌고 있었다.

"그렇죠.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이 모든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별자리처럼요?" AJ가 스텔라의 그림을 꺼내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동과 깨달음이 가득했다.

마티유의 눈이 반짝였다. "정확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항로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항해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밤이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도 곧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되겠군요." 마티유가 말했다.

AJ는 잠시 말을 잃었다. 마티유의 말이 그녀의 내면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만남과 경험들이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네? 무슨 의미이신지..." AJ가 물었다.

"보세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모든 여행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 되죠."

AJ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루이즈의 용기, 레오의 지혜, 안토니오의 열정, 스텔라의 순수함... 그리고 지금 마티유가 들려주는 항해의 이야기까지.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어가고 있었다.

"떠나기 전에, 이것을 가져가세요."

마티유는 작은 나침반을 그녀에게 건넸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 나침반은 항상 당신이 가야 할 곳을 가리킬 거예요. 비록 그곳이 어디인지 당장은 모르지라도...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마티유의 가게는 어느새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손 안의 나침반은 분명히 실재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볼까..."

AJ가 중얼거리자 밤이 그녀의 손을 살짝 훔쳤다. 새벽바람이 불어오며 또 다른 이야기로의 초대 속삭이는 듯했다.

7장: 시간의 끝에서

새벽녘의 뉴욕은 마치 두 개의 시간이 겹쳐진 것처럼 보였다. 네온사인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빛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AJ는 마티유에게 받은 나침반을 들여다보았다. 바늘이 이상하게 움직였다. 분명 북쪽을 가리켜야 하는데, 바늘은 마치 춤추듯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러다 문득 한 방향을 가리키며 멈췄다.

"저기가 어딜까, 밤이야?"

바늘이 가리키는 곳으로 걸어가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다. 처음 이 도시에 들어왔던 그 골목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날 밤 느꼈던 낯섦 대신, 이상한 친근감이 느껴졌다.

골목 끝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스텔라였다.

"여기까지 오실 줄 알았어요." 소녀가 환하게 웃었다.

"스텔라? 하지만 넌 고아원으로 돌아갔잖아..."

"그래요. 하지만 이건 특별한 시간이니까요. 작별 인사는 해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AJ는 깨달았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잠시만요." 스텔라가 다시 스케치북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려도 될까요?"

소녀의 손끝에서 마지막 별자리가 완성되어갔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모든 별들이 하나로 이어져 커다란 나선을 이루고 있었다.

"이게 뭐니?"

"당신의 여정이예요. 보세요, 이 별은 루이즈 언니... 이건 레오 할아버지... 안토니오 아저씨... 그리고 마티유 선생님까지. 모두가 이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루이즈였다. 그리고 그 뒤로 레오, 안토니오, 마티유가 차례로 나타났다.

"떠나기 전에 인사는 해야 죠." 루이즈가 말했다.

"우리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토니오가 덧붙였다.

레오는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이건 선물입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세요."

마티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침반은 잘 간직하셨나요? 그건 언제나 당신의 길을 비춰줄 겁니다."

AJ는 목이 메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렸다니,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준 선물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다 현실이었나요, 아니면..."

"그게 중요한가요?" 스텔라가 부드럽게 물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것뿐이에요."

루이즈가 다가와 AJ를 포옹했다.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준비되었어요."

레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죠. 당신의 이야기도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안토니오는 작은 종이를 건넸다. "제 특제 파스타 레시피예요. 가끔 만들어 드세요. 음식은 우리를 위로해주니까요."

마티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해는 계속됩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스텔라가 마지막 별자리 그림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 당신의 별이 정말 밝아졌어요. 보세요..."

AJ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별들이 마치 축하하듯 반짝였고, 그 빛줄기가 하나로 이어져 거대한 나선을 그리고 있었다. 스텔라의 그림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밤이가 조용히 일어나 앉았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모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다. 뒤돌아보니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AJ의 일부가 되어있었으니까.

새벽빛 속에서 캠핑카가 보였다. 밤이가 먼저 올라탔다.

"그래, 이제 정말 돌아가야겠지..."

운전대를 잡는 순간, AJ는 주머니 속의 나침반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할머니의 다이어리에서 본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진정한 여행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방식과 마음으로 느끼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만남과 경험을 통해 AJ는 자신을 되찾았고,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8장: 새로운 시작

캠핑카의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에 AJ는 천천히 눈을 떴다. 호숫가의 풍경은 어젯밤과 다름없이 고요했다. 밤이는 여전히 조수석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게 다 꿈이었을까..."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무언가가 반짝였다. 대시보드 위에는 마티유가 준 나침반이 놓여 있었고, 조수석에는 레오의 책과 안토니오의 레시피, 그리고 스텔라의 별자리 그림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할머니의 다이어리를 펼쳐든 AJ는 새로운 글귀를 발견했다.

'1924년의 뉴욕은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주었다. 그곳에서 만난 모든 영혼들은 내 안에 별이 되어 빛나고 있다...'

AJ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할머니도 과거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할머니와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휴대폰을 켜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있었다. 모두 회사에서 온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이제 알겠어, 밤이야." AJ가 반려견을 바라보며 말했다.

밤이는 고개를 들어 AJ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 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여정과 경험
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마치 AJ의 안내자이자 조력자처럼 보였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도망갈 곳이 아니었어. 그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그게 전부
였던 거야."

밤이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AJ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
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AJ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글쓰기를 시작하기로 했다.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안
토니오의 파스타 레시피로 시작해서, 차츰 자신만의 메뉴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에서 낮익은 얼굴이 보였다. 스텔라를 닮은 한 소녀가 그림
을 그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봤어, 밤이야?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걸까?"

밤이가 앞으로 재빨리 몸을 움직이며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스케치북을 살펴보며
관심 있게 반응했다.

이를 통해 AJ는 밤이가 그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AJ
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었던 것이다.

신호가 바뀌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AJ는 루이즈의 말을 떠올렸다.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준비되었어요.'

맞다. 이제 그녀는 준비되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
니, 희미하게나마 별들이 여전히 보였다. 그중에서 특별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래, 약속할게." AJ가 속삭였다. "이제 내 별을 찾아갈게요."

밤이가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으로 들어섰다. 집 안에는 여전히 일상의 흔적들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타자기가 놓여있었다. AJ는 천천히 종이를 끼우고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
다.

'때로는 가장 긴 여행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

창밖으로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AJ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만의 여정을 펼쳐나갈 준비가 되었
다. 그리고 밤이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어
떨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유를 누리며 성장해 나갈 것이다.

집을 나서기 전, AJ는 잠시 멈춰 서서 밤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꺼내어 보니 밤이의 목걸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밤이?"

밤이는 AJ의 시선을 받아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핏었다. 그리고는 다시 AJ의
눈을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 속에서 AJ는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밤이의 눈빛 속에는 그동안의 여정과 경험, 그리고 AJ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심이 담겨 있

었다. 마치 그가 AJ의 안내자이자 조력자였던 것처럼 말이다.

AJ는 밤이의 행동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강아지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그녀의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해 온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다.

불현듯, AJ의 주머니 속 목걸이에 새겨진 별모양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다. 그제야 AJ는 이 작은 장식품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들을 시간을 넘나들게 했던 열쇠였음을 깨달았다.

AJ는 목걸이를 꺼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밤이의 목에 다시 걸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밤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헤매고 있었을 거야."

밤이는 AJ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표정 속에서 AJ는 마치 "언제나 곁에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집 밖으로 나서는 AJ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녀의 곁에 있을 밤이와 함께, 그녀는 자신의 별을 찾아 나설 것이다.